

KEDI 국제금현물ETF가격 지수 산출방법 (Methodology Book)

Feb. 2025

1. 지수 소개

- A. 본 문서는 **KEDI 국제금현물ETF가격 지수**(KEDI Global Physical Gold ETF Price Index)를 산출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- B. “KEDI 국제금현물ETF가격 지수”는 미국과 캐나다에 상장된 금(Gold)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 포트폴리오를 매수하는 전략의 성과를 추종하는 지수입니다.
- C. 본 지수는 배당금이 재투자되지 않는 가격 지수이며 (Price Return), 통화는 미국달러(USD)를 기준으로 합니다.

구분	기준시점	기준지수	발표일	산출시간	리밸런싱 주기
일반전략지수	2018.12.21	1,000	2025.02.21	08:30AM (KST)	ETF포트폴리오(분기별)

2. 지수 구성방법

- i. **ETF 포트폴리오 유니버스 선정**
 KEDI 국제금현물ETF가격 지수의 유니버스를 구성하기 위하여,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기초 투자 유니버스를 선정합니다.
 - 미국 증권거래소(뉴욕증권거래소, 나스닥 등) 및 캐나다 증권거래소(토론토 증권거래소 등)에 상장된 금(Gold)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 (단, 금가격 추종을 위해서 금현물 이외의 자산을 편입하는 종목은 제외)
 - 정기변경일 기준 AUM(운용자산)이 3,000만달러 이상인 ETF
 - 정기변경일 기준 3개월 일 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인 ETF
- B. **편입 종목 선정**
 유니버스에 해당하는 ETF 중 10종목을 선정합니다. 보수율이 낮은 순으로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우선적으로 편입하고, 편입된 종목 수가 10개 미만일 경우, 캐나다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편입합니다. 보수율이 동일한 경우 AUM이 더 큰 종목을 우선 편입합니다.
- C. **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 산정 방식**
 선정된 편입 종목에 대해 다음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ETF를 정렬합니다.
 1. 미국 상장 여부
 2. 최근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3억 원 이상 여부 (정기 변경일 기준)
 3. 총보수율
 4. AUM

이렇게 정렬된 ETF 중 상위 1~3위에는 각각 20% 비중을, 4~6위에는 각각 10% 비중을 할당합니다. 나머지 ETF에는 남은 10%를 동일한 비중으로 배분합니다.

3. 지수 산출방법

A. 계산 방법

KEDI 국제금현물ETF가격 지수는 2018년 12월 21일 지수를 기준지수 1,00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.

$$I(t = 0) = 1000$$

$$I(t) = \frac{\sum_i P_{i,t} \times Q_{i,t}}{\sum_i P_{i,t-1} \times Q_{i,t-1}} \times I(t - 1)$$

t	특정 시점 t
I(t=0):	지수 I의 기준 값 (1000)
I(t):	t 시점 지수 I의 산출 값
I(t-1):	t-1 시점 지수 I의 산출 값
P _{i,t} :	t 시점 종목 i의 증가
Q _{i,t} :	t 시점 종목 i의 보유량

4. 지수 관리 및 유지

A. ETF 포트폴리오 정기변경 (분기별)

- 영업일은 미국 그리고 캐나다 주식시장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
- 본 지수의 ETF 포트폴리오는 3, 6, 9, 12월 세번째 금요일 옵션만기일의 1 영업일 전날 편입 비중을 산정 후, 3, 6, 9, 12월 세번째 금요일 옵션만기일 장 종료 시점에 정기변경을 수행합니다.

B. 수시변경

- 합병/분할, 상장폐지 등 특정 기업 이벤트 발생에 대한 수시변경은 일반적으로 「기업 이벤트 적용 방법론」을 따릅니다. 영업 손실 등 운용 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KEDI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시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- 지수를 구성하는 ETF의 변동으로 a) 지수의 성격에 어긋날 수 있거나, b) 운용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, c) 영업손실 확대 등으로 해당 지수 관련 상품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이벤트의 경우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<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>

이 문서를 포함한 KEDI(한국경제신문지수)의 지수 콘텐츠는 (주)한국경제신문과 서면동의 없이 복제, 전송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. KEDI의 지수 콘텐츠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산출 및 공표와 관련한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 (주)한국경제신문은 KEDI 지수를 기반으로 한 제 3 자의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며, 지수 이용자와 제 3 자간에 서비스를 매개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. 또한 투자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